<2018년 6월 24일 주일말씀>

사랑의 혼

본 문 마태복음 5장 47-48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 너희가 사랑하는 형제에게만 잘해 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잘해 주고, 사랑을 줘야 된다.

2.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개성적인 대우를 받고 기뻐함을 받는다.

3.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혼'이다.

4. 사람의 기본 심리를 보면, 자기가 좋아해서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려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5. <자기가 잘해 주는 자>에게만 잘해 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도 사랑해 주고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도 해 줘야 된다.

6. <온전한 하나님> 같이 온전한 자가 돼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혼' 이다.

7.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잘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혼' 이다.

8. <사랑>이 '혼' 이다.

9. <사랑>이 '생명' 이다.

10.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 이다. 곧 <사랑>이 '혼' 이다.

11. <사람의 혼>은 '육신에게 생명' 이다.

12. <진리>와 <사랑>은 항상 일체 된 세계다. 마치 <손>이 있으면, 손바닥도 붙어 있고, 손등도 붙어 있듯이 <사랑>은 '진리' 와 붙어 있다.

13. <사랑>이 떠나면, '혼 빠진 자' 다.

14. <하나님>은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사랑>이 떠나게 되면, '혼 빠진 자'와 같다.

15. 사람이 <혼>이 나가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근본을 잊어버린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사랑>이 빠지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듯 한다.

16. <근본>인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를 좇아도 혼 나간 사람과 같다.

17. <개인, 가정, 민족,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혼 빠진 개인, 혼 빠진 가정, 혼 빠진 민족, 혼 빠진 세계다.

18. <근본 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사랑'이다.

19. <하나님의 근본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20. 하나님은 '사랑의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를 펴오셨다. 곧, <땅의 사랑>과 <하늘의 근본적인 사랑, 영의 사랑> 두 가지다.

21.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근본 뜻, 근본 내용, 근본 뿌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육적인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일에서 끝나버린다.

22. 〈근본 된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다. 〈이성(異性)으로 타락되지 않은 사랑〉, 〈하나님 주관권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사랑〉이다. 이와 같은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의 혼' 이다.

23.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매일 사랑함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핵이다.

25. 〈시대 신부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니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모시고 사랑하며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혼 빠진 자' 다.

26.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가령 하나님께서 "내 말 잘 들어라." 하시면, 이는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면, 이 역시도 사랑해서 말씀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면, 이 역시도 사랑해서 말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알아야 '사랑의 혼이 빠지지 않은 자' 다.

27.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셔도, 이는 사랑해서 말씀한 것이다.

28.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에게는 답을 주지 않고, 대화를 안 해 주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사랑해서 말씀해 주신다.

29. <사람 간의 이성적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며, '본질적인 세계의 사랑'이다.

30. 좋아해야, '사랑'이 가진다.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가진다.

31. <첫째>는 좋아해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에 '핵무기가 되는 사랑'이 연결된다.

32. <사랑>에는 분위기 사랑, 혹은 심리적 사랑, 혹은 습관적 사랑 등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 '사랑의 혼'이다.

33. 하나님은 <월명동 자연성전>을 모두가 좋아하도록 지으셨다. 고로 모두 보고 "좋다! 속이 시원하다! 대단하다!" 하고 시인한다.

34.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이 구상해서 만든 곳'이다. 6000년 하나님의 역사 위에 주신 지상의 거대한 황금성이다.

35. <월명동 자연성전>도 좋아서 만들었다. 돌이 보석이며 황금입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구상해 만들어 주신 황금성전입니다. 좋아해서 나무를 갖다 심고, 좋아해서 돌을 쌓고, 좋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과 같이 만든 것이다. 나쁘게 생각하고 기쁘

지 않으면 안 만듭니다.

36. 힘들지만 갈 길을 가야 되고, 어려움을 이겨야 되고,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희망'이며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에 절대적이다.

37. <좋아하기>, <사랑하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기>다.

38. <휴거>는 온전함으로 된다.

39. <휴거>가 됐어도, 계속해서 '차원 높은 휴거'에 도전해야 된다.

40.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고, '같이 사는 때'다. <신랑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이 목적이니, 잘 살아야 된다.

41. <온전하게 하라는 것>은 "100% 해라." 함이다.

42. 그때는 부분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100% 해야 된다.

43. 100% 온전하게 안 하면, 문제가 또 일어난다. 고로 100% 온전하게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4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공의롭게 행하여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늘 사랑하면서 역사를 펴 나가

자.” 하셨다.

45.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절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주 사랑, 형제 사랑이다.

46.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자들>은 ‘혼 빠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늘 사랑으로 대해 주는 것’이다.

47. <사랑>에는 ‘진리’가 같이 있고, <그 진리와 사랑>에 ‘혼, 정신, 사상, 사고’가 들어 있다.

48. <혼, 정신, 사상, 사고>가 잘못된 세계에 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퍼부어 줄 수 없다. 왜? 잘못된 사고에 자꾸 사랑을 주면, 잘못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49. <최고의 작품인 자신>을 이상적으로 멋있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50. <부활기> 때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변화’이며, ‘새롭게 하는 것’이다.

51. 새롭게 되고, 고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대상’으로서 사는 데에 문제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52. <혼 빠진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자

기의 혼’ 이다.

5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도 ‘사랑하는 자’가 ‘혼’이다. 서로의 혼이 돼서 일체 되는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